

# 주간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Feb. 2017  
Vol.5 No.2

- 연합교사훈련
- 주안에만남
- 영커플 교구
- 교육부 소식 / 칼럼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n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2세들 50여명 '성경통독' 열기

### ■ ICY 주안에말씀

EM 힐링캠프의 은혜로웠던 시간들이 아직 기억속에 남아있는 지난 2월 4일(토) 오전 11시, LA채플에는 ICY와 EM의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영어성경으로 읽어드리는 IC WORD, 즉 ICY, EM 주안에 말씀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기 때문이었다.

찬양과 경배로 시작한 모임은 솔로몬 전도사의 기도와 성이삭 전도사의 말씀으로 이어졌고, 앞으로 6주동안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면 우선 신약성경을 한 번 통독하게 된다.

다음주 금요일(2/10) 저녁 7시 30분에 벨리채플과 LA채플을 시작으로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플러튼 채플이 시작되며, 모임 때 14장 정도를 합독하고 매주 30장 정도씩 집에서 읽어오면 6주만에 신약성경을 일독하게 되는 좋은 기회이다.

벨리채플 인도자로는 이성우, 성이삭 전도사, LA채플은 이요셉 전도사, 플러튼채플은 강솔로몬 전도사께서 수고를 하겠는데, 2월 4일 현재 50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English Bible IC WORD 훈련이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할 수 있었다.

때를 맞추어 지난 2월 1일부터는 3개채플에서 주안에말씀 성경통독(신,구약 18주과정)이 열리고 있어, 주안예교회에 말씀 읽



는 소리가 답을 넘어 전 세계로 울려 퍼지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이번 EM, ICY 주안에 말씀(신약통독)을 시작으로, 이번 신약과정을 마치고 나면 곧이어 구약 과정도 통독을 할 계획을 갖고있다고 한다. 우리 EM, ICY 자녀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

는 모습을 보며 우리 주안예교회의 미래는 매우 밝고 또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준비를 해야겠다는 도전을 받는다.

먼저 믿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더욱 귀한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좋은 기회와 환경과 훌륭한 인도자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이광영 기자 |



## 사명과 프로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자



### ■ 유치등부 교사훈련

지난 2월 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채플 본당에서 2017년 1차 주안예교회 ICKids 교사훈련 및 세미나가 있었다.

주안예교회 세 채플의 유치등부, 유치부, 유아부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었는데 평소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여 장차 주의 귀한 성도들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큰 사명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라 3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였다.

이날 1차 훈련에는 환영과 찬양 시간 후에 양국민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마 8:12~14)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교사는 어린이 한명을 위해 울

어 주고 찾아가 희생하는 사명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을 예수님계로 이끌어 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특별함이 있어야 어린이들에게 평생 기억되는 교사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신앙의 싹을 틔워주는 교사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프로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교사의 기본 사명은 가르침인데 교사가 목숨을 걸고 가르칠 일은 “예배”이다. 첫번째 가르침은 주일 예배이고 두 번째 가르침은 삶의 예배이다. 우리가 가르칠 핵심은 예수님이다. 그들이 교사의 가르침을 다 잊어도 그들 기억에 예수님만 남게 되면 성공한 교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사가 되고 교사로서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

의 영혼을 살리며 나도 살게 되면 성공한 교사, 축복 받는 교사가 될 것이다.

2부 11시부터 김유진 전도사의 인도로 나눔 소그룹을 통해 실질 지도 훈련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티칭 팀과 행정스텝 팀으로 나누어 탐사역 역할 교육이 있었다.

이번 1차 교사훈련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프로정신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지도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고 3개 채플 교사들 간의 유대와 동료애를 키우는 유익한 모임이 될 수 있었다. 한편 4월 1일에 “LA 어린이 전도협회” 주최로 LA에 있는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LA지역 연합 교사강습회를 갖게 되는데 주안예교회 3개 채플 주일학교 교사들도 참여 할 예정이므로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다. | 나형철 기자 |

## 맑고 고운 영성 담아 하나님 찬양, 축축한 은혜의 단비

### ■ 백석대학교

지난 2월 3일 금요일영성집회는 백석합창단의 공연으로 세 채플과 ICY, EM, KM학생들까지 연합으로 드리는 첫 주중예배가 되었다.

백석합창단은 대한민국 유일한 대학 전문 합창단으로 단원 전원이 성악 혹은 뮤지컬 전공자들이다. 허락된 재능을 통해 소외된 영을 구원하고 위로와 감격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날 최갑중 총장님, 지휘자되시는 최경열 교수님과 22명의 합창단원이 자리를 빛내주었다.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으로 가는 몇걸음만에 마주친 학생들은 행동이나 준비하는 내내 웃음이 그치지 않는 모습이 해맑아 보였다. 먼 길을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녁식사가 준비되었다. 쉼 없는 스케줄에 지친 영혼과 육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주안예교회 성도들의 환영하는 마음을 충분히 느꼈으리라 짐작해본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한소절 한소절, 눈빛과 손짓, 발달한 울동까지 어린 나이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을 통해 영혼까지 교통하며 그 시간 백석합창단을 통해 주안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언제 지나갔는지 온 마음을 빼앗겼던 시간이 다 지나고 마지막 곡이 끝나자 아쉬움을 가득

담아 열심히 열심을 다한 학생들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리는 박수가 쉬 멈추지 않았다.

청춘이 청춘이어서 아름답다는 것. 그 푸름만으로도 아름답다 말하기 부족함이 없을진대 그 귀한만큼 아쉬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그 복음을 위해 많은 것을 아깝지 않게 희생하고 있는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기도한다. | 채은영 기자 |

■ 주안에만남(LA채플)



고졸리 성도



김지희 성도



박현순 집사



홍정화 성도



김태은 권사

## 하나님 말씀의 은혜 나누며 평안과 기쁨

지난 2월 5일(주일) 오후 1시 LA CHAPEL 친교관에서는 2017년 들어서 첫번째의 주안에만남이 진행되었다.

거의 6개월 만에 마련된 자리였음에도 어김없이 27명의 새가족 분들이 참가하셔서 주안예교회의 소개와 목회방향과 비전등을 알아가며 믿음생활에 대한 미래를 부풀어오는 마음으로 그려보는 시간이었다.

늘 그렇듯이 시작을 알리는 정용재 찬양팀 리더의 찬양만으로도 모두의 마음을 열어가기에 충분한 듯 보였다.

최혁 담임목사님께서, 지금까지는 새가족 분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한번이어서 아쉬움이 있었기에, 이제는 3주에 한번씩 만남의 자리를 더 마련하여서 좀 더 많은 대화와 교제로 그 분들의 믿음생활과 교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시려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각자 본인의 소개를 통해서 주안예교회에 문을 두드리게 된 동기를 소개하실 때에는, 한분 한분의 삶 속에 깊게 개입하시는 그분의 관심과 사랑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EM 힐링캠프에 참가했던 아들의 권유로 1월 1일 부터 출석을 하였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울어서 화장을 못하고 오신다는 어느 집사님,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할 때, 우연히 전해받은 CD 한장 때문에 다 시금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그분, 4년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카톨릭을 쫓아 봤지만 가슴에 닿는게 없어서 헤메이다가 최혁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주안예교회로 발을 들여놓으셨다는 성도님... 오랜 목회활동을 해오시다 잠시 안식을 취하고 계시는 목사님 부부도 계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열심히 뛰고 계시는 선교사님 커플도 계시다.

“새신자”가 아니라, 신앙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꺼이 “새가족”이라는 명칭으로, 어렵게 다시 시작한 이분들에게 주안예교회는, 상처보다는 위로가 있는 교회, 혹 상처가 있더라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교회, 초심을 잃고 방황하는 일이 없이 오래도록 한결같은 모습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 오희경 기자 |



윤케니 성도



남진숙/임익돈 선교사



윤순한 장로/춘자 권사

■ 주안에만남(LA채플)



박미애 성도



이민아 집사



한윤희 성도



전혜경 성도



이병주 권사

격이 없는 대화·진솔한 간증 우리는 '하나'



윤수연 성도



정호상/김주영 성도



김기표 권사

이상적인 공동체

교회 출석 3개월 만에 최혁 목사님과 주안에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목사님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어서 주안에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고 계신지 마냥 궁금 했지만 주안에만남을 통해서 같이 한 시간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재치와 위트로 새신자들이 편안하게 듣고 한가죽으로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섬기고, 둘째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심을 느꼈습니다.

먼저 섬겼던 교회가 나로 인해 분리되고 와해 되기를 원치 않아 온갖 나쁜 소문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답지 못한 경조사비 관행들을 일절 근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과 생활용품들을 준비해 주셨고 선교비로 선교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를 도우신다는 말씀을 들으니 '아! 내가 정말 잘 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다 내가 바라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내가 주안에 주가 내안에 곧 영생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달란트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며 말씀이 실체가 되어 내가 사는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김기표 권사 |



신호식/옥기 성도



김일수/유영진 집사



김재선 집사



오경순 집사



엄혜원 집사



김헬렌 집사



## 하나님 사랑·부모님 사랑은 마쉬멜로우보다 '달큰'



### ■ 발렌사인 뱅킷

2월 12일 ICKIDZ 주일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의미의 “발렌사인”이라는 주제로 예배가 드려졌고, 어린 학생들이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이 날은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며, 그 받은 사랑은 어떻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 즉,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고 세상의 관습과 구별된 삶의 적용까지를 고려하며 학생들에게 발렌사인의 참된 의미가 올바르게 심어질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고민하며 기도으로 준비한 시간이었다.

세 채플에서는 달란트를 가지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해 발렌사인의 의미가 충분히 담기도록 단장된 예배실에서 예배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설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LA채플의 이명재 전도사님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터 시작되고 그 사랑을 먼저 받고 또 그 은혜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예수님의 빛이 되어 이웃들에

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발렌사인”의 메시지를 전했다. 말씀을 받는 학생들의 눈은 집중되어지고 말씀과 교감되어선지 눈에서 여느때보다 더 빛이 나고 있었다.

달란트잔치를 포함해 아이들을 흥겹게할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 주었다. 상업적으로 변질된 발렌타인데이가 아니라 참된 사랑을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려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노력이 묻어나는 시간이었다.

반년넘게 열심히 모아온 달란트로 친구를 위한 선물도 사고 엄마를 위해서도 하나 고르고 동생이나 언니를 위해서도 하나 고를 수 있을 만큼 많은 달란트 또 그 만큼 다양한 물품들로 달란트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반짝거리는 눈동자를 이리 저리 둘러보며 선물을 고르는 아이들 얼굴은 크지 않은 선물에 큰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묻어 났다.

밸리채플 ICKIDZ ROOM에 마련된 초코렛 분수대 하나라도 아이들은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사방으로 퍼지는 초코렛향기는 후각을 자극하고 뷔페나 가야 보던 초코렛 분수대를 주일학교에서 보니 아이들은 신나게 초코렛을 바나나 혹은 마쉬멜로우에 적셔 먹고 또 먹었다.

LA채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활동을 통해 주일마다 함께 만나는 친구들과 서로서로 더 깊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친구의 이름과 스펠링을 직접 써 보는 빙고 게임을 하였다.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친구들에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며 아울러 학생들 각자가 부모님과 함께 각 가정에서 준비하여 온 작은 선물들을 본인들이 친구들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전해주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을 위해 준비해 오신 정성어린 선물들로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예배의 마무리는 부모님들께서 함께 하는 귀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보내주시는 맛있는 음식들을 학생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먹으며 즐겁고 감사한 교제를 나누었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이 학생들에게 잘 심어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으로 발렌사인이 되어 그들이 세워진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길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한다.

아울러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세대들을 위해 교육부와 학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되어 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 채은영, 김명자 기자 |



## 푹푹한 젊음 화사한 미소 '행복 바이러스'



안건우/정지혜



박준호/차진희



이영우B/이경현



문병훈/이정은

### ■ 영커플교구(LA채플)

오랫동안 기도해 온 LA채플 영커플 교구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도 주안예교회 표어가 “돌봄” 인데, 영커플 교구 역시도 “서로 돌보며 세워가는 건강한 가정”을 Vision Statement로 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결혼하여 이제 막 세워진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관심을 가지고 섬겨주면서, 모든 가정이 신앙 위에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게 됩니다.

영커플 교구는 20-30대 결혼한 커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령대의 결혼한 커플이라면 얼마든지 영커플 교구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기모임은 1달에 한번씩 이뤄지지만, 매 주일 2부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제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웃팅 모임도 실시하여 함께 행복한 추억들도 쌓아가게 됩니다. 주안예신문 2월호가 나오는 오늘은 불링장으로 첫 번 아웃팅을 나가는 날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영커플 구역에 맞는 말씀공부 교재를 선택하였습니다. 7권(1.결혼의 목적 2.연인에서 가족으로 3.의사소통 4.남

자와 여자 5.용서 6.결혼과 성 7.바람과 짐작) 으로 구성된 ‘커플힐링 시리즈’ 교재(아래 사진)를 순차적으로 구역모임에서 공부하고 가정과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Mother wise, Father wise 과정도 추가적으로 병행하여 좋은 아빠, 엄마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영커플 교구에 새로운 커플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하게 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커플 교구와 각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성도님들의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현욱 목사(LA채플 영커플 담당교역자) |



문만성/김민선



구조셉/최빛나리



3/1(수) 주안에라이프 개강 (밸리채플)

3/4(토) 가정사역축제 (장소: LA채플)

3/5(주일) 주안에만남/새가족교육1 (밸리채플)

3/7(화), 3/8(수) 주안예살 11기 개강

3/12(주일) 주안에만남/새가족교육1 (플러튼채플)

3/18(토) 임직예정자 훈련

3/19(주일) 세례교육I/새가족교육2 (LA채플)

3/25(토) 임직예정자 훈련

3/26(주일) 세례교육II/새가족교육2 (밸리채플)

MARCH  
ministry calendar

■ 4교구(플러튼채플)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플러튼 4교구 구역예배가 김경일 장로님 댁에서 10여 분의 교구원들이 모여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김 장로님의 인도로 믿음의 분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부하며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며, 부활을 소망하는 교회였는데 4교구 구역원들 모두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며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는 주안예교회의 초석과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구역공부를 마치고 함께 모여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큰 병이나 수술 등을 받은 교우들을 위하여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 병중에 있는 분들을 당신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친히 치료하여주소서 이 분들과 저희 교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평생 간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공부를 마치고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음식은 모두 김옥희 권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지 차려진 음식을 먹기가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이날 음식은 ‘진수성찬’이라는 말보다는 ‘정갈함’이나 ‘맛깔스러움’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그런 차림이었습니다. 감칠맛 나는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사랑방이었습니다.



4교구 교구장이신 김경일 장로님은 플러튼에 단 한 분뿐인 시무장로님이십니다. 안주인이신 김옥희 피택권사님은 교육부 국장님으로 봉사하시는데 늘 하나님 앞에 서서(코람데오) 하나님의 일을 본인의 일보다 먼저 챙기시는 분입니다. 2015년과 2016년 주안에 교회의 멕시코 선교에 합류하기 위해 두 번이나 직장을 그만둘 정도의 깊은 선교의 열정은 주안에 교우들의 귀감을 넘어 선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녀와서 다시 직장을 잡고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5개월 만에 4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직장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인데 어렵게 입수한 사실을 야단맞을 각오로 공개합니다. 게다가 세 따님도 모두 주안예교회를 다니며 교회 봉사에 앞장서는, 그야말로 전 가족이 주안예교회에 올인한, 모두에게 부러움을 사는 가정입니다.

구역원들도 많은 분들이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봉사를 하는데 백승렬 집사님과 정강수 집사님은 찬양대에서, 조순택 집사님은 한의사로 의료팀에서, 그리고 이현주 집사님은 재정부와 ICY 총무로 봉사하십니다. 4교구 구역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주안예교회의 교인인 사실에 새삼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조성운 기자 |

■ 4교구(밸리채플)

웃음과 활력이 넘쳐나요

4교구 교구장으로는 안진호 피택안수집사님과 안희성 피택권사님께서 섬기고 계신다.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역별 부구역장으로는 1구역에 김병선/수지 집사님, 2구역에 박한신/강진령 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신다. 아마도 밸리채플의 평균연령을 한껏 낮춰줄 만큼 젊은 커플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떠나온 모국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4교구만큼은 어느 가정에서 모임을 갖기가 힘들 정도로 어린 아이들이 뛰어 다닌다.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구역모임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는 교구라고 할 수 있겠다.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안집사님 내외분은 교구에 속한 많은 젊은 부부들의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다. 그래서일까? 교구식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교구 식구들이 없으면 주일학교 운영에 크나큰 차질을 빚을 것이 명백하다. ICY 학부 모모임 팀장을 맡고 있는 조성호/현정 집사님, ICY 총무를 맡고 있는 강충규, 강은숙 집사님, ICKIDZ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수지, 윤유엔, 강진령, 이우중, 이지현, 이지혜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의 헌신을 위해

뒤에서 외조해 주시는 김병선, 윤성훈, 장준혁 집사님 또 얼마전까지 교사로 봉사하시다 안식년을 갖고 계시는 박에스터 집사님과 서포터즈 박재홍 집사님까지 교구장님의 분을 받아서 일까 교구원의 90% 이상이 교회의 정예요원임이 분명하다.

부모님들의 헌신은 백마디 말보다 더 나은 교육이 된다는 본보기가 되고 있는 4교구에 속한 자녀들 역시 주안예교회 차세대 일군으로써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 옛 속담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던가. 부모의 성실한 그리고 신실한 믿음이 험난하고 자극적인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자란 것처럼 아이들의 눈망울, 행동거지 하나 하나가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눅2:52)’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의 성실함에 뿌리내려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눅2:40)’는 말씀을 우리 교회 4교구 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고 그 결과물 역시 개인이 감당할 일이다. 누구도 개입하여 가감할 수 없고 상벌을 나눌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 아래 교구나 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동행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일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함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 채은영 기자 |



■ 권사회 단합(플러튼채플)

##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사랑의 수고에 늘 앞장

플러튼 채플 권사님들, 아니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친목하며 단합하여 하나가 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은실 권사님께서 대문을 활짝 여시고 권사님들을 환영해주셨습니다.

음식은 각자가 한 가지씩 준비해주셨는데 모아놓고 보니 음식 경연대회 못지않은 상차림이었습니다. 반찬이 아닌, 요리가 큰 상한 가득 차려졌습니다. 게다가 김은실 권사님의 부군되시는 김성용 집사님께서 맛있는 바비큐로 외조를 하시며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박현동 목사님과 오승현 전도사님께서 격려하시려 자리를 함께해주셨습니다. 박목사님께서 시편 62편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 다윗처럼, 권사님들도 하나님의 시과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친목을 다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웃음꽃이 터지고, 박수가 나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권사님들은 서로의 역할 분담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먼저는 교회의 음식입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물론이고, 토요일 새벽기도 뒤에 나누는 오찬, 수요일 교역자들을 위한 저녁 식사가 정기적인 봉사이고, 여기에 각종 행사 때마다 필요한 음식을 플러튼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벨리채플까지 달려가 준비해 주십니다.

또한 플러튼의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들이십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물론이고 매일 계속되는 새벽 기도회까지 기도의 주축은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김영희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초대 회장으로 수고하신 이 에스더 권사님께서 튼튼하게 기초를 놓



아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셔서 2기 권사회는 너무도 순탄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돌봄'이라는 교회의 표어대로 돌보는 권사회가 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는 회장이라는 직함만 있었지 모든 일은 우리 권사님들이 모두 솔선수범하여 해주셨습니다." 이 에스더 권사님의 답변입니다.

플러튼 권사회 때문이라도 우리 주안에교회의 2017년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 조성운 기자 |

■ 주안에말씀

## 채플마다 성경 읽는 소리, 영적 성장 '쑥쑥'



2월 1일부터 제 7기 주안에말씀(성경통독)이 3개 채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40명이 등록한 이번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4개월 여 만에 일독할 수 있다는 기대에 시작부터 뜨거운 열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세끼 식사를 먹는 일 만큼이나, 아니 그 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매일 읽거나, 한 권을 통독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해도 중간에 흐지

부지 되거나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안에 말씀 과정이 이러한 우리들의 약점을 잘 알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을 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도전하시고 어떤 분들은 매년 이 과정을 한 번씩 이수하기도 합니다.

이번 7기 주안에 말씀은 벨리는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오전, LA는 수요일 저녁, 그리고

플러튼은 목요일 저녁에 모여 2시간 동안 말씀을 약 20장정도 함께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집에서 정해진 분량을 읽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주안에 말씀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기회에는 꼭 도전하도록 권해드립니다.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고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주안에교회 교우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 조성운 기자 |

■ 칼럼

## ‘제니퍼를 보내며...’

같은 교회를 섬기던 동갑내기 권사의 딸이 대학을 입학하고 마약을 복용하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이제는 정말 모두 정리 되어 집으로 돌아온다는 주일에 그녀는 하와이 바닷가에 시체로 발견 되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 조사를 했다. 이 땅을 떠난 제니퍼야! 너를 그토록 만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이 너의 육신 대신, 너의 영혼 앞에 여기 모여 있다.

“엄마! 내가 이제 엄마한테 갈 거야” 하고 네가 전화 한번 하면, 몇 번이고 너의 엄마는 너를 위한 계획을 세우며, 딸을 위해 기도했던 이웃들 앞에서 고마워 했었지. 당장 돌아와 눈앞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제니퍼가 오면 제니퍼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고루 다 해 줄 거야” 하며 즐거워했었다.

우리는 매일 세상에 속으면서 기뻐하고 꿈을 꾸며 살고 있지. 너도 아름다운 꿈을 가득 담고, 집안의 큰딸로 부모를 위해 살기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나누고 살고 싶다고, 꿈을 키워 왔지 않니? 부모가 하고 싶은 것 하나 못하고 살면서, 너희를 키워 온 것을 보았던 너는, 부모에게 원하는 것들을 다 해드리고 싶어서, 더 크고 든든하게 자라고 싶었을 거야. 너의 부모가 외할머니를 사랑하며 섬기고 살았던 것을 보아온 너는, 너도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고 싶어 했겠지. 외할머니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던 네가 나갔던 사회와 가정의 크나큰 차이를 몰랐던 너는, 길을 잃어버리고 혼자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런 너를 가슴에 안고 아빠는 매일 일천번제 새벽 기도를 3년을 쌓으며 너를 돕기를 원하셨다. 아깝처럼 가장 사랑하던 베냐민을 포기 하면서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딸보다 하나님 일에 더 열심을 냈던 그 깊은 사랑을 너는 알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자비로 CD를 만들어 전도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와 물질과, 목사님들을 주님 섬기듯 섬기며, 어려운 교우들을 돌보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베풀며 너를 기다렸었다. 베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될 까봐 온 힘을 다해 섬기며, 각지의 제니퍼를 기다리며 살았었다.

어린 네가 측은하면 측은한 만큼 하나님께 매달렸던 너의 부모님을 너는 잘 알고 있지? 예쁜 두 딸 잘 키워서 남의 집 아들 못지않게 하나님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너의 부모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부르는 곳마다 달려가 일하면서도, 언제나 너를 가슴에 안아 보고 싶었다. 남들 흔히 가는 선교 여행 한번 못 가면서 언제 부를지 모르는 손님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성심 성의껏 일하는 아빠 엄마의 꿈은 예쁘게 자란 딸들의 행복이었다.

말씀을 암송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던 너의 부모님은 언제라도 네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을 알고 있었지? 그래서 “엄마의 은퇴

연금은 나야. 나!” 했던 너를 엄마는 끝까지 믿고 기다렸었다.

제니퍼야! 우리 부모들은 말도 안 통하는 세상에서 병어리가 되었고, 귀머거리가 된 채,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지침서도 없이, 내 가정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려고 애써 일 했었다. 때로는 그런 부모의 과잉 사랑과 보호가 너를 아프게도 하고, 불편하게도 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랐던 세상은, 희로애락을 표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배워서, 자식한테도 있는 대로 사랑을 표현 못하고 살았던 우리였다.

제니퍼야! 많이 외로웠지? 그런데 네가 외로웠던 것보다 표현하지 못한 부모들의 외로움은 더욱 컸었다. 네가 보고 싶어 했던 것 보다 더 많이 너의 부모는 너를 보고 싶었다.

너의 회개의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 받기를 바란다.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울며 회개했을 너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안아 주셨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도하며 너를 우리는 보내지만, 너의 부모의 가슴 속에 너는 영원히 묻혀 있을 거야.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에 거할 것을 믿으며 기도한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엄마 친구 에스더 권사가. | 이에스터 기자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계절에 관계없이 국수만 있으면 시원한 냉면이나 동치미 국수를 즐길 수 있도록 이달엔 음식의 손맛으로 알려진 벨리채플 주방의 김현숙 피택권사의 동치미 물김치의 비법을 소개 한다. / 박창신 기자

### 동치미 물김치



**재료** 찹쌀풀 1컵, 무 1개(중간크기), 배 ¼쪽(중간 크기), 마늘, 생강 3쪽(2배의 크기), 양파 1개(중간 크기), 새우젓 2작은술, 게세마리 액젓 4큰술, 설탕 ½큰술, 소금 약간 (기호대로), 할라피노 2개(큰 크기), 파 6개(흰 부분만), 저민 생강 6쪽, 양배추 ½ 통(중간 크기), 보라색 양배추 ¼ 통(중간 크기)

**조리법** 1. 분량의 배, 마늘, 양파, 생강, 새우젓, 게세마리 액젓을 함께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간다.  
2. 김치병에 할라피노, 파(흰 부분만), 생강, 양배추, 보라색 양배추(익으면 색깔이 예쁨), 무를 2x5cm 크리로 썰어 넣는다.  
3. 찹쌀풀 1 컵, 갈아놓은 양념과 함께 섞어 김치병에 담고 물을 넣어 설탕과 소금으로 기호에 맞게 약

간 달콤 짭짤하도록 간을 한다.  
4. 기포가 생기며 익을 때까지(요즈음 날씨에 이틀 정도) 실온에 익힌 후 냉장조에 보관하여 사용하면 톡 쏘는 사이타 맛이 나는 동치미 물김치를 즐길 수 있다.  
\*삶은 달걀, 갈비구이, 닭구이 등을 곁들이면 더욱 특별한 상 차림이 되지 않을까 한다.

### 365일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지만 봉사의 자리엔 언제나...

■ 숨은 일꾼  
(플러튼채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피곤하도록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구역장 미팅에서 한 구역장이 하는 말이었다.

이민 사회, 남의 나라에서 사는 일이 쉬울 리가 없다. 그래도 한국 대기업의 파견 근무하다 직장 잡아서 사는 그분은 맨땅에서 일하는 우리보다는 쉬운 편인데... 공부가 끝나고 장로님께서 나에게 덧붙여주시길 말씀이 있느냐고 물으시길래 나는 입을 열었다.

우리 구역의 집사님은 일년 365일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일 저녁 6:30에 구역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지요. 8시부터 8시이지만 주일 만큼은 6시에 문을 닫으니까요.

집사님은 봉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자



민창식/경숙 집사

기 집 일로 부담을 가지시다가 주일이면 1부 예배 기도곡을 섬기고, 작년 야외예배, 운동회 날에는 일찍 공원에 도착해서 모든 텐트와 설비를 준비해 놓고 점심식사도 거르고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가게로 갔지

요. 3주년 기념 예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역에 들어가 소고기 볶음을 혼자 다 했습니다.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땀을 흘리며 고기를 볶아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요. 구역장과 본인만 아는 봉사. 아무도 그분의 얼굴을 모르니까요. 또한 구역에서 식사 당번일 때, 크고 작은 교회 일에 맡았어, 조용히 굶은일을 도맡아 해내시는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바로 이런 헌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피곤한 몸으로 그는 또 가게에 가서 웃으며 일을 하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민의 삶을 살면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일하기를 기뻐합니다. | 이예스터 기자 |

### ■ 영화소개 [Hacksaw Ridge]

## ‘전장에 꽃핀 용사의 믿음’

종교적 신념과 국가의 안위가 충돌할 땐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우리에게 러셀워프시리즈로 더 유명한 멜 깁슨 감독의 “핵소고지”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신념은 타인과 국가와도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고 증언하는 작품이다.



영화는 포화가 빗발치는 극박하고 처절한 장면 위로 주인공의 차분하고 담담한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지상의 모든 죽음의 창조주 주님은 지치거나 경계하지 않아 주님의 뜻을 누구도 해야될 순 없어 힘겨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약자들에게 능력을 강화시키고 사람은 지치고 힘겨워져 젊은이는 허딘고 쓰러지며 주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능력을 회복할거야...”

데스몬드 도스는 총을 들지 않은 군인 최초로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 훈장”을 수여 받았다. 어느 한 순간의 영웅적인 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도스 삶을 관통하는 종교적 신념을 기초하여 전투기간 내내 영웅이었던 도스의 호소력 강한 실화를 영화화 하고

싶어 10여년만에 멜 깁슨이 메가폰을 잡았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도스는 죽이는 것이 목적인 전쟁에 사람을 구하고 싶어 의무병으로 육군에 자원 입대한다.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총기 훈련을 거부하자 육군은 군대 기강과 단합을 흐린다는 이유로 그를 제대시키려 하고, 동료들은 겁쟁이라며 비난과 조롱을 가한다. 외롭고 기나긴 사투 끝에 도스는 무기 없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제 2차대전 당시 가장 치열했던 오키나와 전투에 맨몸으로 참전하게 된다. 핵소 고지 위에서 격렬한 총격전 속에서 도스는 홀로 남아 부상당한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고 후퇴 명령 이후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며 전장을 헤치고 다니며 자신의 팔이 골절되고 다리에 수류탄 파편이 박히는 등의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도 약 100여명의 부상자 중 75명의 생명을 구해낸다.

반세기가 지나도록 데스몬드 도스의 이야기가 미디어를 통해 쉽게 만날 수 없던 이유는 데스몬드 도스가 한평생 조용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오랜 설득 끝에 죽음을 얼마 안남긴 2006년 87세때에 비로소 영화화를 허락함으로써 2017년 드디어 우리와 대면하였다.

영화의 크라이막스에 도스는 두려움과 공포, 절망감에 젖어 하나님께 묻는다. “제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들려오는 동료들의 비명소리와 의무병을 찾는 소

리에 그렇그런한 눈망울로 철모를 쓰고 포화속으로 들어간다. 후퇴명령이 내려진 이후로도 홀로 일본군을 피해다니며 온종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제발 하나님.. 한명만 더..” 10계명중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총을 만지지도 않고 육식조차 거부한 채식주의자 도스는 그렇게 아골골짜기같은 핵소고지에서 동료 75명을 구한다. 전쟁터가 다 그렇겠지만 스크린을 가득 매운 핵소 고지는 흡사 지옥 같다.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았다. 얼마되지 않아 다시 핵소고지로 출정하는 미군은 더 이상 도스를 조롱하거나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도스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공격시간을 미뤘고 이전과 다르지 않으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미군은 핵소고지 점령에 성공한다. 종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때였다.

참혹한 전장에서 인간의 존엄은 깃털보다도 가볍고 전쟁이 끝난 후엔 승전병이나 패전병이나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남길 뿐이다. 핵소 고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라 양심적 협력자였음을 주장하고 입증했던 도스를 통해 종교와 병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과 전쟁의 무의미함을 전한다. 또한 도스로 분한 앤드류 가필드는 종교적 신념을 또 다른 영화 “사일런스”를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신념의 강인함이 혼재되어 있는 주인공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 채은영 기자 |

주안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주신 교회로...

유권열, 유수원 집사님은 10년 전 이민와 줄곧 LA에서 한 교회를 섬기다 벨리로 이사하면서 교회를 옮기기로 했다. 말 그대로 “믿음직한” 믿음의 가장인 유권열 집사님 곁을 지키는 유수원 집사님은 상대적으로 “내 믿음이 참 보잘것 없다” 생각을 하며 교회생활을 했다고 한다.

새로운 교회를 찾다 보니 재미 있는 드라마 한편을 본 것 같은 설교에 귀가 확 열리기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공허함이 찾아와 “역시 난 아닌가” 실망하는 아내를 유권열 집사님은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중심을 잡아가는 것” 이라 격려하며 주안예교회를 찾았다. 뭐 그리 다르겠냐 했는데 최혁 목사님의 말씀은 유수원 집사님의 마음을 관통하며 뭔가 다르다 싶었다고 한다.

첫날 예배에서 겸손한 마음에 대한 설교를 통해 유수원 집사님은 “아~ 내 남편이 바로 겸손한 사람” 이었구나 깨닫게 되었고 남편에 대한 존중,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 또한 참된 내려놓음에 대한 말씀은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바뀌게 해주었다.

이젠 주일예배는 물론이고 금요일예배에 새벽예배까지, 의무감이 컸던 교회생활이 주일을 고대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 가고 있다 한다. 육신이 연약한 인간이라 마음과 다르게 쓰러지고 넘어지겠지만 이 가정의 여정이 새로운 길에 접어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가정을 위해 주안예교회 모든 성도가 한가족이 된 마음으로 응원하고 중보기도하길 요청하는 바이다.



유권열/수원 집사(벨리)

목사님 말씀 CD에 내 마음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시 118:8-9)" 2017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을 받았을 때는 '아~ 하나님 안에 나에 삶을 맡기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CD를 들던 중에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집 떠난 탕자만 있었던게 아니라 집 안에도 탕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집안에 있는 탕자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뻐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야 진정 제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주 내내 라디오에서 또는 목사님 말씀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란 말씀이 자주 제 마음에 박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내려 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직 나를 잡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 놓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춰 주시어 내안에 어두운 죄를 모두 몰아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온전히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올해 주신 말씀이 다시 읽어 보니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는 내려 놓고 예수만 드러내면 살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올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다른 깨달음을 주실지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2017년을 저의 인생에 온전한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는 해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김난희 집사(LA)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벨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LA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30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벨리채플

새벽 예배

벨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중고등부)

벨리채플/ 주일 오전 11:00, 금 저녁 7:3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목 저녁 7:15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수 저녁 7:30

Logos(영어청년부) 벨리&플러튼채플/ 주일 오후 1:30

Coram Deo(한어청년부) 벨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벨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주안에” 2017년 3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이예스더, 이지현,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